

KIMA 2015 WEEK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쇼 주관  부산 MBC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해양문화재단  BPA  부산항만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BC

특별후원  스타자동차(주)  (주)골든블루

www.kimaweek.org

KIMA+ Plus

September. 2015 | Vol. 06

KIMA+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September. 2015 | Vol. 06

KIMA WEEK 2015 개막

+ Media

해양레저의 세계
이제 KIMA PASS로 통한다!

+ Marine Leisure

해양레포츠, 그 멋진 新世界
부산MBC <바다야 놀자> 시즌 3
촬영현장에서 만난 해양레포츠

+ Special

INTERVIEW

임기택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자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2015년 11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금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주 소 :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3-10 (두실역 2번출구)
- 문 의 : 1688-2369(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대표번호: 1688 - 2369(Benz)
해운대 전시장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울 산 전시장 울산 남구 삼산로 83(달동)
금 정 전시장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3-10(11월 오픈 예정)
www.mbstar.co.kr

*긴급출동서비스 080-001-1886
해운대 서비스센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울 산 서비스센터 울산 남구 삼산동 214-2
금 정 서비스센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3-10(11월 오픈 예정)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Vol. 06 | September. 2015



발행처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발행인 문철호
편집인 여한웅
기획·편집 안효영
디자인·제작 하늘기획 051.611.3970
발행일 2015. 09. 10
add.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tel. 051.760.1130
web. www.kimaweek.org

KIMA+ plus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홍보용 매거진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IMA+ plus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필름가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04/ **KIMA WEEK 2015**
滿喫 만끽 하라
KIMA의 바다

06/ **KIMA WEEK 2015**
GREETINGS
축하메시지

12/ **KIMA WEEK 2015**
KIMA WEEK 2015
OVERVIEW OF THE PROGRAMS

20/ **KIMA+ People**
INTERVIEW
해양레저는 바다의 꽃입니다
KIMA WEEK 2105 홍보대사 배우 정준호

22/ **KIMA+ People**
KIMA WEEK가 뭐냐고? 우리가 알려줄게!
KIMA WEEK 명예기자단 발대식 후 본격 활동

26/ **KIMA+ Media**
해양레저의 세계
이제 KIMA PASS로 통한다!

30/ **KIMA+ Marine Leisure**
해양레포츠, 그 멋진 新世界
부산MBC <바다야 놀자> 시즌 3
촬영현장에서 만난 해양레포츠

34/ **KIMA+ Culture**
꿈꾸던 보트... 이루어지다
아이디어가 실제 레저보트로 탄생하는 제작과정
부산MBC 다큐멘터리로 제작, 10월 방송예정

38/ **KIMA Special 01**
INTERVIEW
임기택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자

42/ **KIMA Special 02**
BK21플러스 해양디자인인력양성사업팀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46/ **KIMA+ Industry**
대원마린텍 | (주)비건

48/ **KIMA+ News Clip**
해수부,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4곳 선정
210억 원 메가요트 주관연구기관 선정

50/ **KIMA+ Brief**
주요단신



해변이 떠나가도록 웃어대던 아이들의 재잘거림,
파도를 가르던 서퍼들의 환호가 얼마나 짜릿했습니까.
지난 여름, 바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KIMA의 계절,
바다의 풍요에 찬사를 보내고,
바다와 함께 세계가 어울려 미래를 꿈꿉니다.
그야말로 바다를 만끽滿喫할 시간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
역시 바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KIMA의 바다를 만끽하십시오!

滿喫만끽하라 KIMA의 바다





“

앞으로 아시아 최고의 보트쇼로 성장해서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해양레저산업
강국으로서도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길 소망합니다.

”

2015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주일간의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문철호 대표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는 건강에도 좋고 삶에 활력을 주는 대단히 유익한 활동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미래산업으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는 각기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해양레저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경관이 멋있고,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는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그 중심에 서게 하는 든든한 토대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컨퍼런스 와 해양스포츠대회, TV 버라이어티쇼와 무료 체험활동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진 1주일간의 축제는 해양레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3회째를 맞아 더욱 내실과 깊이를 더하고, 참여의 폭이 넓어진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축제도시 부산의 명성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축제에 포함된 부산 국제보트쇼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 아시아 최고의 보트쇼로 성장해서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해양레저산업 강국으로서도 도약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길 소망합니다. 정부도 해양레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이 동북아 해양레저 허브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초가을로 접어드는 부산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해양레저워크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

부산에 머무시는 동안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



2015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의 개막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풍성하고 알찬 행사를 준비해주신 문철호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이사장님과 오성근 (주)백스코 사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해양산업과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하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모든 참여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 국회의원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15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련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문화 축제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부산국제보트쇼’를 함께 개최하면서 부산을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본 행사가 해양레저에 대한 부산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세계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레저를 크루즈산업, 마이스산업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머무시는 동안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

부산시민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바다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

전 세계 바다축제 2015년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대국 그리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바다를 연구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2015년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해양
강국 코리아 비전실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 행사가 부산시민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바다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의 화 국회의장

정의화

“

해양레저는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에 새로운 미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깨동무 하고 같이 걸어가입시다!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입니다.

‘2015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축제의 주간에는 바다를 주제로 온갖
놀거리들이 펼쳐집니다. 모든 행사가 놓칠 수 없는 관람 필수입니다.

특히 광안대교 달빛 아래 펼쳐지는 야간수영대회는 정말 멋지고 신나게 들립니다.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해양레저는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에 새로운 미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깨동무 하고 같이 걸어가입시다!

김 무 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金武星

● ● ●
문 철 호

공동조직위원장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KIMA WEEK(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가 어느덧 세 번째 축제의 장을 엽니다.

지난해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KIMA WEEK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로 해양과 문화 그리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올해도 그랜드오프닝과 함께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 부산국제보트쇼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행사와 시민을 위한 체험행사, 어린이요트페스티벌, 광안리달빛수영페스티벌 등 해양스포츠행사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주간의 해양레저축제가 펼쳐집니다. 바다의 무한한 풍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기를 꿈꾸며,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분을 해양레저의 도시 부산으로 초대합니다.

● ● ●
박 용 수

공동조직위원장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축제입니다.

KIMA WEEK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문화가 확산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컨퍼런스, 부산국제보트쇼, 어린이 요트페스티벌, 그리고 해양레저 무료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바다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문화와 산업이 활발하게 융합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 ● ●
유 재 진

집행위원장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KIMA WEEK 2015’ 그랜드오프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산하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내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박 민 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레저의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에 대한 수준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특히 해양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 ● ●
나 성 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벌써 3년째가 되었네요. 이 행사는 해양레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만 해도 잘 될 수 있을까 우려했는데, 정말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요트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성장 발전을 위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저도 내년 예산 또 내후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김 도 음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마리나항 개발, 마리나 서비스업 등 해양관광문화를 확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문철호 대표이사장님과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양강국 코리아 파이팅!

● ● ●
김 석 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16세기 영국의 탐험가였던 월터 롤리경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증명된 이 말은 이제는 바다를 즐기는 자 문화를 선도한다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에 참가하는 내빈과 선수 여러분은 바다의 역동성을 누릴 줄 아시기에 미래의 문화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를 계기로 우리 부산의 학생들에게도 해양체험의 기회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바다와 함께 사는 학생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양레포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 ●
이 해 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없이 좋은 가을날씨 속에 펼쳐지는 이 행사는 우리 부산의 강과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글로벌 해양레저 대축제입니다. 무엇보다 해양수도 부산의 면모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강국으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행사들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가 우리 부산 바다의 매력과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개막식

9월 17일(목) 13:50 ~14:30 | 부산 BEXCO 제 1전시장 3B홀

부산 MBC TV 40분간 생방송

KIMA WEEK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련 산업분야를 육성하여 해양강국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기획한 글로벌해양문화축제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WEEK는 2013년을 원년으로 매년 부산에서 개최되며, 국제규모의 컨퍼런스와 컨벤션, 해양레저스포츠대회, 해양레저무료체험, 해양버라이어티 방송콘텐츠의 제작, 부산영상위원회 해양레저 장비 지원사업 등 해양레저를 매개로 세계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하게 되면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부산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독창적인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며 보다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해양레저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는 해양인프라를 통한 국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진정한 창조경제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함으로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KIMA+**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2015

GRAND OPENING

Sept. 17(Thu) 13:50 ~14:30 BEXCO 1st Exhibition 3B Hall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is an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festival planned to realize Korea's vision as a country with abundant marine resources by expanding its base for marine leisure, a new growth engine for Korea, and by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KIMA WEEK is hos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Busan City and is supervised by the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Held yearly beginning in 2013, it attracts conferences and conventions and all kinds of marine leisure sporting events are held, creating a new marine culture the whole world can enjoy.



해양레저산업 글로벌 해양관광도시의 새로운 기회

KIMA WEEK 2015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9월 17일(목) 15:00 ~17:30 | 부산 BEXCO 제 1전시장 3B홀

방송중계 | 부산 MBC TV 60분간 녹화방송

KIMA WEEK 2015 국제컨퍼런스는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최신 교류를 통해 사업 및 연구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속적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장 체계 구축 및 해양레저 강국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KIMA WEEK의 주요 콘텐트이다. 올해는 '해양레저산업, 글로벌 해양관광도시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 아래, 해양레저산업의 좋은 모델이 되는 각 국의 주요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IMA WEEK 2015 개막식과 함께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는 기조연설 및 축하를 위해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해양레저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호주, 스페인, 미국, 중국, 한국 등 5개국의 해양정책 및 협력에 관한 교류의 장이자 토론의 장이 될 KIMA WEEK 2015는 글로벌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IMA+**

좌장 및 연사소개

○● The Chair 좌장

Jaehak Son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 관장
(前 해수부차관)

○● Keynote Speakers

주제발표 1
Sydney in Australia
상업용 재래부두에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탈바꿈한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
Colin Bransgrove 콜링 브랜스그로브
호주마리나협회(MIA) 이사

주제발표 2
Valencia in Spain
해양관광도시와 해양축제의 성공사례
Ernest Ribas Tugores
에르네스 리바스 투고레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대표
CKIPM 기획임원 및 이사

주제발표 3
Seattle in U.S.A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보트산업
및 시장 전망

Peter Schrappen 피터 슈라폰
서북해양무역협회(NMTA)
정부협력부 부사장
슈퍼요트협회 이사

주제발표 4
Shanghai in China
중국 상해 마리나개발 및 크루즈산업
특구 개발현황 및 추진방향

Xiaonian Li 샤오난리 리
상해시 바오산구 상무위원회 및
바오산구 수변개발위원회
(크루즈 산업특구) 부주석

주제발표 5
Korea
한국 마리나산업의
현재와 미래

Soonwook Kwon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장



해양수도 부산, 보트쇼도 이제 부산!

제2회 부산국제보트쇼(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9월 17일(목)~20일(일) | 부산 BEXCO 제 1전시장·수영만요트경기장 야외전시장

방송중계 | 부산 MBC TV 70분간 특별 생방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트·요트,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로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였던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이 관련 산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국제보트쇼'로 행사명을 변경하고 올해는 9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과 전국 최대규모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신규 조성 중인 북항마리나시설 등 최적의 해양레저 여건을 갖춘 조선·해양 산업의 집적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5 부산국제보트쇼'는 단순한 산업 박람회를 넘어 종합적인 해양레포츠 축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국제보트쇼는 실내 전시장을 지난해 대비 약 25% 확대했으며, 요트·보트, 엔진·부품&액세서리, 마리나 시설 및 서비스, 워터스포츠, 보팅 라이프 등 6개 군으로 품목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또한, 실내전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한 요트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전시한다. 보트쇼 사무국은 올해 부산국제보트쇼의 기획방향에 대해 이전보다 거대한 해양레저산업의 수요를 확대하고 참가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보트쇼는 지난해보다 한층 새로운 체험행사로 관람객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전시장 내 대형 수조를 만들어 투명카약과, 피싱카약 등 무료로 직접 시승할 수 있는 체험과, 수조 안에 풀어놓은 송어들을 맨 손으로 잡는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 왜목항을 출발하여 210일간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의 희망항해 이야기도 진행된다. 김선장은 210일간 총 41,900km를 항해했으며,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4번째, 세계에서 6번째로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했다. 김선장이 항해 중 있었던 이야기를 부산국제보트쇼를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세 번째 보트쇼 전시장 내에 흔히들 '기회의 장터'라 부르는 보트오픈마켓을 개설해 보트 거래의 활성화를 높이겠다. 보트오픈마켓은 30여대의 중고보트가 전시되어 현장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평소 보트를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서 고민 하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부대행사로 올해의 보트상 시상식·국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상담회·환영만찬·참가업체 제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KIMA+**

2015 부산국제보트쇼 사무국

612-7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 Tel 051-740-8600 Fax 051-740-7640
E-mail boat@bexco.co.kr



해양레저스포츠 페스티벌

MARINE LEISURE SPORTS FESTIVAL

제4회 광안리 달빛수영페스티벌
9월 19일(토) PM 18:00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제3회 어린이요트 페스티벌
9월 19일(토) ~ 20일(일) |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



제5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9월 9일(수) ~ 13일(일) | 수영강 APEC 나루공원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FREE EXPERIENCE OF MARINE LEISURE SPORTS

9월 17일(목) ~ 23일(수)
해운대 동백섬 더베이101 | 옹호만 다이아몬드 베이



무료체험 신청

Tel 051-760-1352

구글스토어에서 KIMA PASS 앱을 다운받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imaweek.org 참조



KIMA+ Plus 21

KIMA WEEK가 뭐냐고?

우리가 알려줄게!

KIMA WEEK
명예기자단
발대식 후 본격 활동



한 지성인은 젊음을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아이콘으로 정의했다. 끝없는 도전, 미지에 대한 호기심, 지치지 않는 탐색 그 리고 순수, 열정, 아름다움을 내포한 상징적 의미다. 올해 KIMA WEEK는 이런 젊음의 힘을 빌어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KIMA Family(키마 패밀리)를 영입했다. 바로 KIMA WEEK 명예기자단이다.

지난 7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어느새 KIMA WEEK 2015(키마위크) 홍보의 주도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KIMA WEEK 명예기자단을 현장에서 만나보았다.

발대식

7월 28일,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복합 마리나 공간 '더베이 101'에는 풋풋한 젊음의 기운이 가득했다. KIMA WEEK를 더욱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 줄 KIMA WEEK 2015 명예기자단의 발대식이 한창이었다. KIMA WEEK 명예기자단은 해양관련 인력 양성과 외국인 참여 유도를 통한 KIMA WEEK의 글로벌화를 위해 선발된 대학생 및 청년들이다. 이들 명예기자단은 KIMA WEEK 브랜드 가치를 참신하게 홍보하며,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문화 영유층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해양레저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 신선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50여 명의 KIMA WEEK 명예기자단은 부산청년CEO협회 회원, 국립부산해양박물관 대학생기자단, 부산관광공사 영마이스기자단, 베스코 대학생 서포터즈 및 일반 대학생 신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대식은 박용수 KIMA WEEK 2015 공동조직위원장의 명예기자단을 격려하는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KIMA WEEK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명예기자단을 발족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이어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레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기자단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계속해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여한웅 사무총장의 KIMA WEEK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KIMA WEEK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최 진행상황 등을 명예기자단들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날의 주인공인 명예기자단은 선서를 통해 KIMA WEEK의 저변 확대와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났고, 이들의 표정 속에 있는 기자단 활동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SNS
홍보 특강 &
요트체험

명예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특강도 마련되었다.
발대식 전에 진행된 특강에서는 네이버 파워블로그인 '쇼부'의 SNS 마케팅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개인적인 SNS활동을 넘어 공적유익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바른 이해와 KIMA WEEK의 홍보에 적용하는데 유익한 내용이었던 만큼 회원들의 몰입도가 남달랐다. 특강 후, 질의응답시간에는 젊은이다운 풋풋한 대화 속에 구체적이고도 거침없는 논의도 오고갔다. 역시 젊음의 에너지를 감출 수 없는 시간이었다.
발대식을 마친 후, 함께 오찬을 나누는 회원들은 요트계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가 기다린 요트 탑승의 시간! 특별히 KIMA WEEK에서 명예기자단을 위해 제작한 단체 레쉬가드를 입고 아시아 최대 보트 'Matrix'에 탑승한 회원들의 표정은 다소 상기되어 보였다. 단원 중 전남대 박진우 군은 "이제껏 해양레포츠를 즐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요트까지 타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며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KIMA WEEK 2015 명예기자단은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8월,
첫 간담회

발대식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8월 18일,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에 이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조별로 가졌던 홍보 및 피드백의 시간을 거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간담회 자리다.
각 조의 조장이 나와 자신들의 홍보 활약상을 뽑내었고, KIMA WEEK의 새로운 앱 KIMA PASS(키마패스)에 대한 날카로운 모니터링이 이어졌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의 간담회가 끝난 후, 본격적인 해양레포츠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겠는가! 간담회 때의 엄숙함은 어느 샌가 파도에 실려 사라졌고, 명예기자단 전원은 다양한 해양레포츠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여러 명이 한 조가 되어 팀워크를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래프팅,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카약, 처음에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서핑까지! 종목마다의 매력을 온몸으로 만끽한 회원들은 안전수칙과 요령 등을 꼼꼼하게 따져 물으며 홍보를 위한 정보 채기기도 잊지 않았다.



KIMA PASS
홍보활동

이날 명예기자단에게는 또 한가지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다. 다름 아닌 KIMA WEEK의 새로운 모바일 앱 'KIMA PASS'의 론칭을 알리는 홍보활동이었다.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이미지로 디자인된 홍보패널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용하면서 제법 야무진 홍보활동을 보여주었다. 기자단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 KIMA WEEK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해양 레포츠의 스릴과 재미를 꼭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더해지는 시간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KIMA WEEK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명예기자단의 존재가치 역시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이다. KIMA WEEK, 더 나아가 해양 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명예기자단의 앞으로의 활약상을 기대해 보자. **KIMA+**





해양레저의 세계
이제 KIMA PASS로 통한다!



KIMA WEEK 어플 론칭!

KIMA WEEK(키마위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IMA PASS (키마패스)가 지난 8월 3일 오픈되었다.

KIMA PASS는 KIMA WEEK 2015 기간 중 진행되는 콘텐츠 공모사업의 결과물로서 KIMA WEEK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으로 응모하여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주)블루컴이 진행했다.

KIMA PASS는 KIMA WEEK 관련 정보는 물론, 다양한 해양 레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KIMA WEEK 기간 외에도 연중 사용이 가능한 어플로, '해양레저'의 저변확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만 운영 중이며, 곧 아이폰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KIMA PASS 로 통하는 길?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환경) 앱스토어에서 KIMA PASS, 키마패스 혹은 바다야놀자를 검색하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나타난 KIMA PASS 아이콘 (이미지) 을 클릭하면 KIMA PASS가 제공하는 다양한 해양레저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IMA+

KIMA PASS앱을 개발한 (주)블루컴입니다

KIMA WEEK의 콘텐츠 공모에 당선되어 KIMA PASS라는 해양레저 전문 어플을 개발하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KIMA PASS앱은 KIMA WEEK 주요행사 및 해양관련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유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디자인 모토 아래 'Useful viewing in Human'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곡선 라인과 정사각 배열을 조화시키고 해양레저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적용하여 앱의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1차 개발이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보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KIMA PASS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KIMA PASS 바다야 놀자

365일 신나는
해양레저 즐기기

1

KIMA PASS 멤버십

간단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메일 정보)를 입력하면 KIMA PASS 멤버십으로 가입이 된다. 멤버십으로 가입하면, 키마위크의 행사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키마위크

해마다 개최되는 KIMA WEEK의 행사개요는 물론 국제컨퍼런스, 각종 해양레포츠대회 등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다.



3

해양레저 이용정보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해양레저 관련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요트, 유람선,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나 다양한 할인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서 유용하다.



4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멤버십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KIMA WEEK 기간중 진행되는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발급받은 고유번호를 KIMA WEEK 홈페이지 www.kimaweek.org의 무료체험 신청 페이지에 입력한 후, 종목을 선택하여 무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IMA WEEK가 끝난 뒤에도 연중 무료체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5

부산국제보트쇼

보트쇼의 프로그램과 참가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가입회원에게는 사전등록 시 평일 무료, 주말 50% 할인 등 입장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6

해양레저 교육정보

전국에 있는 해양레저 관련단체 및 아카데미의 교육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7

기타

롯데면세점 | 국립부산국악원 | 팬스타크루즈
해양레저 및 관광 관련 회사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레포츠, 그 멋진 新世界

부산MBC <바다야 놀자> 시즌 3 촬영현장에서 만난 해양레포츠



“저기 좀 봐!” “와~ 저게 뭐야?”

아직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아침 7시 반의 송도 해수욕장. 범상치 않은 네 명의 남자들의 등장에 정적은 깨졌고, 바다는 술렁거렸다.

보기만 해도 유쾌해지는 남자들. 권재관, 조윤희, 오정태, 그리고 복현규.

이들이 여기 나타난 이유는 바로 부산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해양레포츠 쇼 <바다야 놀자>의 촬영을 위해서였다. 2013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바다야 놀자>는 지난 7월 22일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현재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네 명의 MC가 직접 체험하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곳,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오시라. “바다야, 놀자!” KIMA+



MARINE SPORTS with 바다야 놀자

제트보트 vs. 제트스키?

제트보트와 제트스키는 모두 동체 바닥에서 물을 빨아들여 압축한 다음 세계 분출하는 방식의 '제트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형제 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모양이 보트냐, 스키냐의 차이일 뿐. 제트보트는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2-18인승이다. 반면 제트스키는 '물 위의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즉, 한 사람의 운전에만 따라 빠른 속도로 요리조리 물살을 가를 수 있는 수상 오토바이인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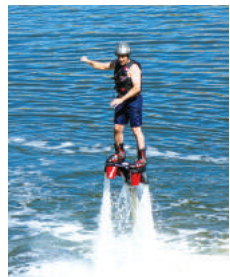


땅콩보트



이름만 듣고 모양을 짐작했겠지만, 놀랍게도 땅콩 모양이 아니다. 모터보트에 매달린 작고 동그란 보트에 몸을 싣고 바다 위를 신나게 달리는 레포츠. 통통거리며 튀기 때문에 묘하게 '땅콩'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것도 같다. 어렵지 않고 가볍게 즐길 수 있어 특히 여성들의 인기가 높다고.

플라이보드(플라이피쉬)



제트 엔진의 출력을 이용해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신개념 해양 레포츠. 유저가 타고 있는 보드에 부착된 호스에 유입된 물로 인한 엄청난 수압으로 순간적인 공중부양이 가능해지는 원리이다. 최대 9m까지 물 위로 뜰 수 있으며, 시원한 바다와 공기를 한꺼번에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 즐길 것

요트

요트는 속도가 빠른 서양식의 소형 범선(帆船)으로써, 근사한 모양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 해양 레포츠라 할 수 있다. 커다란 돛을 통해 바람을 잘 타야 제대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간혹 요트로 세계를 일주하는 분들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실로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갑판이 없는 작은 것부터 호화로운 대형 범선, 디젤기관선 등 크기와 규모가 다양하며, 요트를 이용해 해상에 부표를 띄워 표시한 코스를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완주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운동 경기도 열린다.



바나나보트

모터보트의 힘을 이용하여 즐기는 보트 중 가장 대중적이며 유명한 형태. 바나나처럼 노랑고 길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지만 정식 명칭은 워터슬레이(water sleigh). 뒷좌석부터 한 사람씩 말을 타는 자세로 나란히 앉은 뒤, 손잡이를 꼭 잡고 엮인다. 보통 시속 3-40km로 달리지만 체감속도는 훨씬 빠르다. 속력이 붙을수록 본체가 솟구쳐 올라 물 위를 날아오르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보트가 선회할 때 옆으로 튕겨 물에 빠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때 짜릿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반잠수정



선체 대부분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갑판 위쪽만 물 위로 나오는 잠수정. 초기에는 군사적 용도로 쓰였지만 이를 해양 레포츠에 접목시켰다. 레포츠 용 반잠수정은 요트 같기도 하고 잠수함 같기도 한 모양

을 띄며 특히 남성들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대체로 물 위에는 누워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으며, 물속을 유리로 훤히 비추는 갑판 아래에는 해저의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패들보드 (SUP)

패들보드는 선 채로 노를 저으며 타는 작은 보드의 일종이다. 고도의 균형 감각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 운동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고 좁은 형태이고, 보드가 사람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팔이나 손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기 쉽다. 그래서 본래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용하거나, 물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레포츠 종목으로 완벽히 탈바꿈.



웨이크보드

해양 레포츠의 꽃.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 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다. 보트에 매달린 줄에 의지해 수면을 달리는 점에서는 수상스키와 비슷하지만 웨이크보드의 특성 상 수상스키에 비하여 훨씬 고난도의 묘기를 구사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즉, 수상스키가 속도를 내는 맛이라면 웨이크보드는 묘기를 부리는 맛에 탄다.



카이트보딩

패러글라이딩과 윈드시핑의 환상적인 결합! 카이트보딩은 전용 카이트(연)를 사용하여 보드를 탄 상태에서 수상을 활주하는 수상 스포츠이다. 카이트서핑이라고도 불리며, 유럽과 하와이 등지에서 바람이 잠잠할 때에도 서핑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레포츠인지라 바람의 힘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 우리나라에는 2000년부터 도입되어 해양 레포츠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윈드시핑

일정한 판 위에 돛대를 세우고 바람을 받으며 파도를 타는 스포츠이다. 돛대를 수직으로 고정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연결쇠를 사용하여 돛대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특징. 요트와 서핑이 절묘하게 합쳐진 스포츠로, 오늘날에는 거의 세계 전 지역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1984년 하계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씨워킹

말 그대로 바다 속을 걸어 다니는 레포츠.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헬멧을 착용하여 스쿠버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공급받는다. 수영을 전혀 못 하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 지상과는 다른 해저세계의 아름다움을 여유 있게 감상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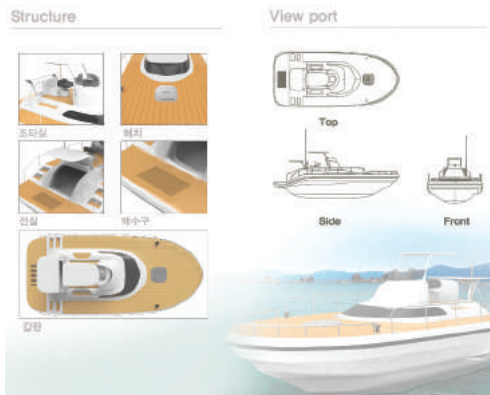
방영기간 | 7/31 ~ 10/17
방송시간 |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MC | 권재관, 조윤호, 오정태, 복현규

꿈꾸던 보트... 이루어지다

아이디어가 실제 레저보트로 탄생하는 제작과정
부산MBC 다큐멘터리로 제작, 10월 방송예정

유례없던 폭염으로 전 국민의 절반이 피서지를 찾아
집가방을 꾸리던 8월 중순, (주)DTEC의 공장 내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돈다. 땀방울 흐르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숨죽임 속에 보트 선체의 상하 데크 접합과정을
진행 중이다. 작업 참여자의 구성도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주)DTEC의 엔지니어 외에도 중소조선연구원 관계자,
부산MBC 다큐팀 정한수 PD, 그리고 이 레저보트의 최초설계자인
유재성 군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이 보트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201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창의적인 레저선박 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디자인센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해양디자인협회,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남시환경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대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공모한 분야는 8m급 낚시보트 디자인이었다. 2013년 기준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약 14만 명으로 2007년 이후 2.1배 늘어났으며 레저선박 등록대수도 약 1만 척으로 동일기간 2.6배 증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낚시인구와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낚시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이번 공모전의 대상을 8m급 낚시보트로 선정했다고 한다. 7월 1일 공고를 시작으로 학생부(초중고)와 일반부(대학생 이상)로 나누어 실시된 대회는 무려 두 달 간의 열전을 치러내며 옥석을 가렸다. 대상작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특전이 주어지며 기타 입상작에 대해서도 창업지원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경쟁은 치열했다. 9월에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은 동명대 3학년(수상 당시)에 재학 중이던 유재성 군이 디자인한 '케어프리 보트'에 돌아갔다. 낚시와 레저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 위에 넓은 공간을 배치한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던 '케어프리 보트'는



시상식 이후 전문가의 보완을 거쳐 실제 선박인 시제품으로 제작되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었다.

2015년 여름

혹독한 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제작 중이던 바로 그 보트가 바로 '케어프리 보트'다. 중소조선연구원과 부산의 대표적인 보트디자인전문회사인 (주)DTEC이 '케어프리 보트' 시제품 제작을 돕기로 했고, 부산MBC는 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레저보트로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담아내기로 하고 다큐멘터리 기획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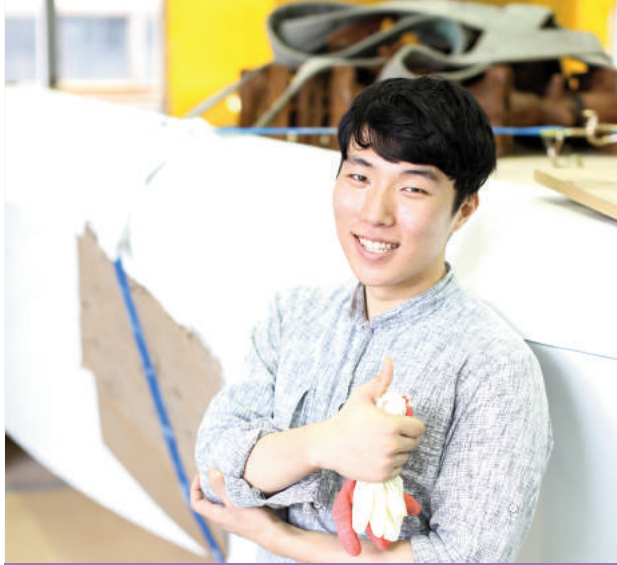
다큐멘터리의 시놉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부산의 한 대학, 곧 졸업을 앞둔 산업디자인 학과 학생이 레저보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그 특전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보트, 세계에서 하나뿐인 보트를 실제로 만들어볼 기회를 얻었다. 한 대의 보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막대한 꿈으로 시작된 보트 디자인이 치열한 제작공정을 거치며 온몸에 각인되었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보트를 보며, 청년은 이제야 제대로 '레저보트 디자이너'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제작자와의 미팅과 디자인 수정, 검사기관 미팅과 선급등록 업무를 마치면 3D모델링을 거쳐 시편 제작에 들어간다. 보트의 모형으로 수조실험까지 마쳐야 비로소 보트제작이 시작된다. 보트의 틀을 만드는 사성 과정, 선체보강작업, 상하판 접합, 의장품 설치, 엔진 장착..., 그야말로 머릿속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진수하는 순간까지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변수와 우여곡절이 녹아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이 모든 과정이 한 대의 보트가 탄생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한 청년의 꿈이 자라는 과정임을 시청자들이 공감해주기를 바랐다.

2016년 10월

부산MBC를 통해 방송예정인 다큐멘터리 '청년의 푸른 꿈(가제) - 레저보트 제작기'는 KIMA WEEK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콘텐츠이기도 하다. KIMA+



유재성 25세

동명대 산업디자인과 4학년 재학중
제1회 창의적인 레저선박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Q 대회 참가동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후 남해 바닷가에서 해양레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때 피서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레저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대회 공고를 보게 되었고, 디자인 전공 학생으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기초 자료조사에 보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보름동안 디자인을 구상해서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Q 출품한 보트의 디자인 컨셉은?

'Carefree Boat(케어프리 보트)'는 기본적으로 낚시와 레저를 즐기는 사용자를 고려한 보트다. 일반적으로 레저보트를 타면 다소 협소한 느낌인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선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디자인했다. 일단, 레저보트의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수에서부터 조타실, 후미까지 공간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 기존의 낚시보트에 비해 더욱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레저보트인 만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디자인했다.

Q 자신이 디자인한 보트가 실제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는 기분이 어떤가?

물론 감격스럽다. 더불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 기분 좋은 부담감도 생겼다. 현장만한 배움터가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하지만 내 꿈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의 설계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중소조선연구원 박사님들, 그리고 DTEC식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강국 코리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지난 6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MO 이사회에서 전 세계 해운·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새로운 수장으로 전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최종 당선되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룬 쾌거이며, 이로써 반기문 UN 사무총장 진출 이후 한국인이 또다시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된 셈이다. KIMA plus는 지난 8월 초, 임기택 당선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당선 후 근황과 세계의 해양을 이끌 리더로서의 비전과 활동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여한웅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Q 여한웅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사무총장
먼저, 차기 IMO 사무총장직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A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저의 당선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Q 선거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에 쾌거를 이루셨는데,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고.

A 사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에서 총 6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5차 선거까지 치열한 접전을 거듭하며 이루어낸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 해양수산부에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A 중남미 순방 중이시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남미 국가를 저희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선거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간의 '협업외교'의 성공적인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및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해군과 민간 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Q 국가적 의지 못지않게 개인적인 역량도 당선에 크게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양 외길인생이시라던데, 간단한 약력도 부탁드립니다.

A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과를 졸업한 후, 마도로스(외항선원) 생활을 시작한 것이 해양과의 첫 인연입니다. 그러다가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 담당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거치며 30여 년간 국내외 해운·해사 분야를 익혔습니다. 특히, 1998년 주영 IMO연락관, 2002년 IMO 기국준수 전문위원회(FSI) 의장, 2004년 아·태 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 의장, 2006년 주영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해양수산관)을 지내며 IMO와 국제해사 무대에서 교류를 넓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가진 IMO 40개 이사국을 약 2개월간 실 새 없이 찾아다니며, IMO에 대한 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사나이로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 해양인 특유의 기질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Q IMO의 수장을 세계 해양 대통령이라 부를 만큼, 세계 해운, 조선분야의 중심인 IMO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소개해주시시오.

A UN 산하에 있는 해양 전문기구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17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2년 가입했습니다. IMO는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규범을 총괄합니다. 해양 물류 운송과 해양 환경보호부터 해상교통, 해적 퇴치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범들이 IMO에서 제정되고 개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현재 IMO에서 관장하는 국제협약은 60개이고, IMO가 제·개정하는 국제협약은 그 내용과 방향에 따라 각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일례로, 1996년 IMO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안전규제 도입에 따라 유조선 건조선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유조선 신규 건조발주가 이어져 우리나라 조선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선박 평형수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선박에 한 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하면서 관련 산업이 조선기자재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극·남극의 개발과 보존,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IMO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는 모든 회원국들이 IMO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에 대해 IMO로부터 의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Q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IMO의 수장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A IMO는 세계의 해운, 해양산업, 안전항해,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수행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정책들도 있겠습니다만, IMO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면 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이끌어가겠다

”

“
한국과 전 세계의
이익을 고루 고려할 것 ...
우리 해운·조선 분야 기술·
노하우를 표준화시켜
국제사회로 가져가겠다

”



름 아닌 지역주의 해소라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IMO 협약만 보아도 개도국이나 중진국이 따라오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협약체계를 단순화하고 하나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 2014년 국내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IMO 결정이 국내 관련 산업에 끼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5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국인 첫 IMO 사무총장 탄생이 해운·조선 산업 부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한 기대일 것입니다.

A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한국의 이익과 전 세계의 이익을 고루 고려할 것입니다. IMO 수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해양이 득을 보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기술 역량에서 1위, 해운은 선대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한국은 해운과 조선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국제사회로 가져가고, 그 내용이 다른 나라에서 수용,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범지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MO가 한국과의 관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해양산업이 거시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Q KIMA WEEK는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저변을 일으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한 글로벌 해양레저축제입니다. 올해 제 3회를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기 세계 해양대통령으로서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은 전 세계가 해양을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경제 시대입니다. 범국가적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저변이 함께 활기를 띠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레저의 활성화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획, 산업과 교육, 문화까지 아우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펼쳐내는 KIMA WEEK는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어 그야말로 글로벌 해양레저 축제로서의 입지를 든든히 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IMA WEEK 2015 개막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KIMA+**



바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
CASE 03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BK21플러스

해양디자인인력양성사업팀

LEVEL-UP PROJECT FOR MARINE DESIGN

사업단 소개 및 비전

동서대학교의 해양디자인인력양성사업팀은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BK21플러스 해양인력양성사업팀'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석·박사 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한다. 총 7년간 약 21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이 사업팀은 단계적 해양디자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해양디자인 전문 연구 인력, 해양 관광컨벤션 기획자, 해양 산업의 창의적 실무 디자이너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동서대학교 해양디자인 사업단은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총 29명의 석·박사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배출되어진 석·박사 연구인력은 국내외의 해양관련 연구기관 및 지자체 해양문화, 관광분야, 해양레저 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업 등에 진출하여 지역의 해양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부산의 21세기 해양문화디자인 메카로서 국제적인 부상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 비전과 목표 vision & target

비전 부산의 21세기 해양문화 디자인 메카로서 국제적인 부상 & 관련산업 경쟁력 향상

목표 특화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양 디자인 전문 인력 육성"



성과

동서대학교 BK21플러스 해양인력양성사업팀의 강범규 교수(팀장)는 2011년부터 DIDIC(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해양디자인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해양 관련 제품디자인, 해양레저 콘텐츠를 발굴해 왔다. 그 결과물을 매년 책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해 관련 기관 및 기업은 물론, 학생과 시민들에게도 해양레저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K지원을 통한 석박사 학생들의 연구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활발하다. 최근 2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41건, 학술대회 발표 37건, 작품전시회 12회 72작품 출품, 공모전 입상 6건 등의 연구실적을 일궈냈으며, 해양디자인을 위한 해외단기 연수프로그램 및 전문가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강화와 연구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해양디자인 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다.

BK21플러스 해양인력양성사업팀은 다양한 해양 아이디어상품들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으며, 실제적인 결과물들도 주목받고 있다. 물놀이 튜브를 재활용한 '놀이형 튜브쿠션'과 부산을 대표하는 바다의 정보, 관광, 축제 등을 소개하는 스마트폰 앱 '우리바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에어메트리스 가방'(2012)과 '보관함 물놀이 튜브'(2014)는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1 놀이형 튜브쿠션
2 에어메트리스 가방(디자인등록 | 제30-0655513호)
3 보관함 물놀이 튜브(특허 | 제10-1363396호)

[해양레저 콘텐츠 조사, 현황조사, 책 제작]

중장기 해양레저발전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해양레저 연구의 기초자료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레저 장비와 해양레저 인구수의 현황조사, 해양레저 이미지 콘텐츠 수집 및 수집되어진 해양레저 콘텐츠 DB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동남권 지역(부산, 울산, 경남)의 해양레저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발굴되어진 해양레저 콘텐츠를 디자인의 힘을 가공하여,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일을 해 왔다. 부산울산경남 '해양레저 콘텐츠 & 스타일'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 책은 동남권 지역의 10곳의 대표바다를 선정하고, 해양레저 장비의 현황 및 해양레저 전문가 인터뷰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 발간된 책은 '해양레저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특징을 담아 낸 해양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글과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제작되어진 것이 특징이다.

해양도시 시드니 탐방, 멜버른 모나쉬대학에서의 해양 디자인 작품전 주관 개최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동서대 BK 해양디자인인력양성사업팀에서는 2015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 전시를 위한 '호주 해양 디자인 · 건축문화 탐방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BK참여교수 3명, 연구원 1명, 석·박사 학생 5명이 참여하였다.

[멜버른-국제초대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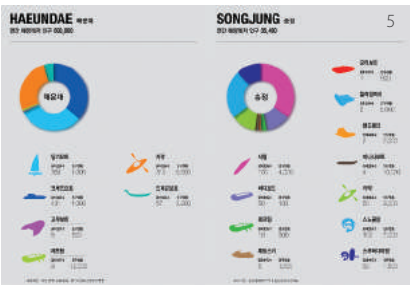
이번 연수에서는 시드니와 멜버른 두 도시를 투어 하였고, 특히 멜버른 모나쉬대학에서 '해양디자인 & 문화콘텐츠 Marine Leisure & Culture

Contents'를 주제로 '국제 작품 초대 전시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작품전은 17개국 101작품이 출품 및 전시된 대규모 국제 전시 개최로써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는 2014년 12월 LA에서 열린 '해양디자인 Marine design' 국제작품초대전에 이어 2번째 주관하여 개최한 국제전시이다. 본 사업팀에서는 이처럼 매년 해양디자인을 주제로 해외에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양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나쉬대학교는 세계 6개 국가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제적 명문학교이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디자인건축대학 학장 및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류의 장을 열고,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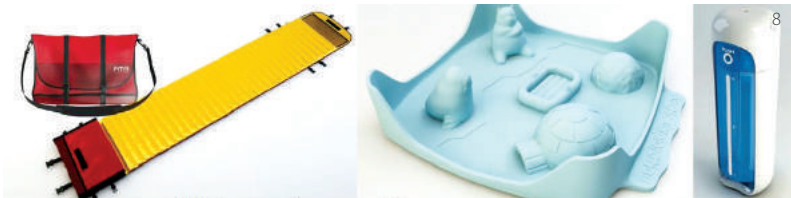
멜버른은 18세기 유럽의 영향을 그대로 남겨놓은 도시이며, 호주의 문화와 예술, 건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다. 좁은 골목에 화려한 그래피티로 가득 채워져있고 한국에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촬영지로 유



10 달링하버
11 모나쉬간담회
12 오페라하우스



- 4 2015 해양레저 즐기기 Enjoy Marine Leisure
- 5 2014 부산울산경남 해양레저 콘텐츠 & 스타일
- 6.7 우리바다앱
- 8 해양용품
- 9 모나쉬대학



대원마린텍



www.frpship.co.kr	
대표	유맹순
설립	2006년
주요제품	선박건조(FRP, CRP, ALLOY) 해양레저장비(요트, 보트, 레저장비) 특수선(고속정, 순찰정, 방산품) 일반장비(풍력기자재, FRP Cover, CRP 제품)
Number	Tel. 051-831-7450~3 / Fax. 051-831-7544 E-mail. info@frpship.co.kr
Address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60번길 42

다기능 복합재료인 FRP(GRP)와 탄소섬유 CRP, 알루미늄 AL을 소재로 한 선박건조 전문업체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공사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대원마린텍은 전문생산인력, 설계디자이너, 생산관리자, 연구개발자 등 장기 근속의 유능한 기술자와 30톤 이상 최대 150톤 급까지의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최적화된 생산시설 및 환경, 입지조건을 가진 부산지역의 기업이다.

대원마린텍 지난 6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The Coast Guard Safety & Equipment Show 2015, 이하 CGS 2015)'에 참가해 순수 국내제조기술로 개발한 '이중킬 요트'를 갯벌에 자가 정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중킬 요트(twin keel yacht)'는 두 개의 킬이 선체를 지지해 '자가 정박'이 가능한 요트로 주로 수심이 낮은 서유럽 국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리 비용 절감 효과의 장점이 있다.

킬(keel)은 세일 요트의 복원성을 높여 요트의 직진 성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중킬(twin keel)은 낮은 수심의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해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같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해역에도 적합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대원마린텍이 선보인 이중킬 요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전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2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에서도 쉽게 세일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20ft급 요트로 구조해석(CFD)과 해상 시운전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존의 싱글 킬(single keel) 및 핀킬(fin keel) 요트와 비교해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추기 위해 개념 설계부터 수조 시험, 구조 강도 해석 등 체계적인 연구 과정을 거쳤으며 100% 국내 설계와 생산 기술력을 통해 개발돼 현재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비건



www.yachtsman.co.kr	
대표	박승준
설립	2010년
주요제품	요트 / 보트 바닥재와 캔버스 / 비미니의 제작 및 시공 전문
Number	Tel. 02-2025-7733, 7722 / Fax. 02-2025-7736 E-mail. psjun@bgain.co.kr
Address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1203호

주식회사 비건은 요트·보트 바닥재와 캔버스·비미니의 제작 및 시공 전문 회사다.

2011년 해양사업부내 요트·보트 인테리어 사업을 본격화 했으며, DIY를 지향하는 쇼핑몰 www.yachtsman.co.kr을 통해 요트·보트 인테리어 노하우와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비건'이라는 회사명 보다는 '요트맨'이라는 이름이 더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주식회사 비건의 강점은 해양환경에 최적화된 세계적 브랜드의 자재와 해외 전문가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기술로 제작 및 시공을 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식회사 비건은 매년 국제규모의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끊임없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국제보트쇼 해양사업 관련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를 장식한 주식회사 비건은 총 2가지의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미 온라인 요트맨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으로, 요트·보트 전문 친환경 세제인 '보트버디(Boat Buddy)'와 펜더 커버(Fender Cover)인 '에스커버(Scover)'이다.

요트·보트 전문 친환경 세제인 '보트버디(Boat Buddy)'는 이미 유럽에서 품질이 검증된 제품으로, 헬(Hull)·데크(Deck) 손상 없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고 깨끗하게 요트·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펜더 커버(Fender Cover)인 Scover는 펜더와 보트 헬 부분의 부딪힘으로부터 펜더와 보트를 모두 보호하는 제품으로, 펜더에 핏(Fit)되는 슬림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제품이었다는 평가다. 원단생산 단계부터 제조과정 전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회사의 자체 제작 제품이다.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없는 해양용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어 주식회사 비건의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이 주목된다.



해수부,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 4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9일, 국가 지원으로 추진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우선협상대상자로 안산 방아머리(안산시), 당진 왜목(당진시), 여수 웅천(여수시), 부산 해운대(삼미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첫 사업계획 공모에 이은 이번 재공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된 바 있다. 재공모에서는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여수 웅천, 창원 명동, 부산 영도, 부산 해운대 6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약 2개월간 사업계획 및 거점으로써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과 현장실사, 예비평가, 최종평가 등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대상지별 사업개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부산 운촌 마리나항만
협상대상자 안산시	협상대상자 당진시	협상대상자 여수시	협상대상자 삼미 컨소시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도 1848-442번지 일원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전면해상	여수시 웅천동 전면 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747번지 일원
사업면적 114,993m ²	사업면적 64,394m ²	사업면적 151,500m ²	사업면적 141,120m ²
총사업비 99,795백만원	총사업비 61,386백만원	총사업비 82,200백만원	총사업비 69,731백만원
사업규모 계류시설 305척, 외곽시설 1,508m, 클럽하우스, 수리소, 숙박 및 상업시설 등	사업규모 계류시설 300척, 외곽시설 1,085m, 클럽하우스, 공원녹지, 숙박 및 상업시설 등	사업규모 계류시설 300척, 외곽시설 1,500m, 클럽하우스, 문화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사업규모 계류시설 250척, 외곽시설 370m, 클럽하우스, 수리소, 공원녹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 480억원, 고용창출 1,160명, 부가가치창출 34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 623억원, 고용창출 740명, 부가가치창출 473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 1,900억원, 고용창출 1,276명, 부가가치창출 60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 740억원, 부가가치창출 273억원



평가위원들은 개발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계획과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으며,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은 80점 이상 획득, 거점성 평가는 고득점 순서로 대상지를 결정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신규 대상지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당초 지정됐던 대상지(인천 덕적도·전북 고군산·창원 명동·울산 진하)는 민간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사업을 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사업시행 조건 등의 협약을 늦어도 11월까지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내년 하반기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KIMA+**

210억 원 메가요트 주관연구기관 선정

향후 5년간 추진되는 100ft 이상 대형요트 개발사업 (주)푸른중공업이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정부 예산 210억 원이 투입되는 ‘100ft급 대형요트 설계·건조 기술개발 및 시제선 건조 (이하 메가요트*기술개발)’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주)푸른중공업(대표 김봉철)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레저선박 시장이 대형요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조선사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수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푸른중공업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이어진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7월 26일까지 이에 대한 다른 업체들의 이의 신청이 없어 메가요트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협약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주)푸른중공업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주)한국해사기술, (주)남양노비텍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공모에 참가하였으며, 그간의 많은 요트 건조 실적과 알루미늄 선체 공장, 인테리어 공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이러한 강점들이 (주)푸

른중공업의 높은 점수로 이어졌고, 실제 메가요트 시제선 건조까지 완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메가요트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이 어디로 선정되느냐는 사업 공고단계부터 레저선박 제조업체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아직은 협소한 국내 레저선박 시장 특성상, 210억 원 규모의 정부 주도 레저선박 연구개발사업은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업 공모에는 국내에서 자력으로 레저선박이 생산가능한 주요 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 모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함에 따라, 국내에 있는 레저선박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이번 주관기관 선정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푸른중공업이 주관연구기관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협약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야만 한다. KIMST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연구협약(8월말~9월초 예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요트시장은 이미 대형요트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탈리아, 미국, 대만, 중국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우리나라를 세계 요트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이끌어 줄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KIMA+**

●길이 100ft(34m)이상의 대형요트로서, 한 척당 백억 원을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요트

연구기간·연구비 2015~2019(5년간) 국비 210억 원(기업 별도 매칭 예정)					
연구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00ft급 메가요트 요소 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메가요트 요소기술 최적설계	핵심부품 개발	메가요트 핵심부품 시제품 제작	메가요트 시제선 제작	메가요트 시제선 제작 및 성능시험

KIMA BRIEF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2015년 해양관광위원회 개최

7월 21일(화), 부산MBC 대회의실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2015년 해양관광위원회가 7월 21일 부산MBC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여한웅 사무총장의 KIMA WEEK 2015 행사개요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안건논의에 들어갔다. 정용문 위원장(한국관광공사 동남권 협력지사 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KIMA PASS 앱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업체로부터 기능과 무료활용방안이 소개되었고, 해양관광위원들의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되었다.

계속해서 KIMA WEEK 2015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제안이 이어졌으며,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연간사업 및 KIMA WEEK 2016의 사업제안에 대한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KIMA WEEK 2015 명예기자단 발대식

7월 28일(화), 더베이101 마린홀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 확대 및 KIMA WEEK 홍보를 위해 선발된 KIMA WEEK 명예기자단의 발대식이 지난 7월 28일(화)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있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용수 KIMA WEEK 2015 공동조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레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명예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을 주문했다. 이어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여한웅 사무총장의 사업 현황 보고와 요트 체험 행사 등이 있었다. KIMA WEEK 2015 명예기자단은 SNS를 통하여 KIMA WEEK 행사 및 KIMA PASS 앱 알리기에 힘을 예정이다.

KIMA PASS(KIMA WEEK Tour Pass) 앱 출시

해양 레저 축제 정보 검색 및 참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KIMA WEEK에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산업, 문화, 관광이 조화로운 융합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를 지향하는 KIMA WEEK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앱인 ‘KIMA PASS’를 지난 8월 3일 출시했다. KIMA PASS는 KIMA WEEK 주요행사, 이벤트 푸쉬 알림과 참여업체의 홍보 및 온·오프라인 실시간 예약 및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비즈니스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버라이어티쇼 <바다야 놀자> 시즌3 첫방송

부산MBC에서 7월31일 ~ 10월 17일 방영



2013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해양버라이어티쇼 <바다야 놀자>가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바다야 놀자>는 해양레저스포츠 범시민 활성화를 위한 네 남자의 학습 - 도전 - 미션으로 구성된 좌충우돌 바다도전 프로그램으로써 부산MBC에서 7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는 매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개그맨 조윤호, 권재관, 오정태, 복현규가 시즌3의 MC를 맡아 활약 중이며, 본 시즌은 10월 17일 12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차보차, 부산바다축제 속 KIMA WEEK 홍보

8월 5일(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지난 8월 초,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시민참여행사로 진행된 차보차(찾아가는보물찾기) 행사 중, ‘KIMA WEEK 2015’ 홍보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차보차는 ‘찾아가는 보물찾기’라는 풀네임을 가진 부산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시민참여형 팝업 이벤트로서 미션이 있는 보물지도를 가지고, 행사공간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제를 풀거나 미션을 완수하고, 보물을 교환하는 방식의 행사다. 참여자 대부분이 젊은 층이며, 휴가철의 절정인 8월 부산바다축제의 현장에서 진행된 만큼 KIMA WEEK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KIMA WEEK 2015 명예기자단 간담회 및 APP 홍보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발대식 이후 조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던 KIMA WEEK 2015 명예기자단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8월 18일(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명예기자단은 각 조장이 대표로 자신이 속한 조의 홍보 활동상황을 보고했으며, KIMA WEEK와 KIMA PASS 앱에 관한 피드백을 나누었다. 간담회 이후에는 함께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며 시민들에게 KIMA PASS 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우 정준호,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홍보대사에 위촉

9월 7일(월), 부산MBC 사장실



영화배우 정준호가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이하 KIMA WEEK 2015)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KIMA WEEK 2015 조직위원회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영화배우 정준호가 다양한 홍보대사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는 KIMA WEEK 2015의 홍보대사에 적격이라고 판단하여 위촉하였다. 이날 위촉식 이후, 문철호 조직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홍보대사 정준호 씨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 해양레저산업의 가치와 글로벌 해양레저도시로서 부산의 가능성에 대해 조예 깊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KIMA Awards - 해양레저산업 대상」 공모

한국 해양산업 발전 기여자 시상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레저 문화와 산업의 발전 및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KIMA Awards-해양레저산업 대상」을 제정하고,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 및 시상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대상은 해양레저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한민국 해양레저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공이 큰 자이며, 국제협력, 산업육성, 학술교육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9월 4일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당선작은 9월 10일 개별 통지된다.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엽니다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_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KOREA MARINE LEISURE NETWORK_ 69, Gampo-ro 8beon-gil, Suyeong-gu, Busan, Korea
T. +82 51 760 1130 F. +82 51 760 1134 E. komalnet@naver.com

KIMA WEEK 2015 조직위원회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부산국제보트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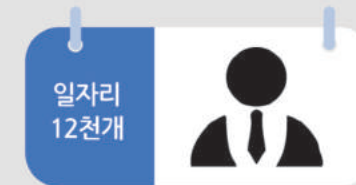
2015. 9.17(THU) ▶ 9.20(SUN)

BEXCO 제1전시장 / 수영만 요트경기장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 부산,
2015 부산국제보트쇼가 두 번째 닻을 올립니다

럭셔리 요트부터 최첨단 보트를 한자리에...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마리나가 열겠습니다.”



1. 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 마리나·요트 관광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국산 레저선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드러움의 격이 다른 대한민국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36.5도 정통 수퍼 프리미엄 위스키

"40도 공식" 깨고 저도주 위스키 돌풍.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한국경제 14.12.31]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2015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조선일보 15.02.10]

2015 세계 3대 국제 주류 품평회, 금상 은상 동시 수상
[중앙일보 15.04.13]

전체 위스키 시장 감소 속, 2015년 1분기 골든블루 65% 판매증가
[동아일보 15.04.27]

골든블루, 국내 위스키 시장 자각변동 일으켜... 위스키 3위로
[매일경제 15.04.27]



GOLDEN BLUE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해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선6기**
글로벌해양수도 부산에서 바다의 힘으로
희망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에게 바다란,

유라시아 관문,
북항 재창조

글로벌 복합물류허브,
부산신항 개발

해양 R&D 클러스터

세계적인
해운항만 서비스산업 육성

해양경제리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고부가
채류형 해양레저관광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부산의
힘이다!

바다에서 발견한
무한한 가능성들로 신해양경제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